



[뉴스] 돼지장기가 사람 몸 속으로 이종이식 내년 '첫 발' 02



Economy

코스피	1964.65 (+4.40)	코스닥	615.96 (+8.95)
금리 (2년 국채)	1.16 (+0.06)	환율 (원/달러)	1202.50 (-5.80) (21일)

삼성페이 뜨자 '애플 신용카드' IT공룡, '남의 땅'서 진검승부

IT업계,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경쟁 삼성페이 국내간편결제 80% 점유 남미·미국 등서 사용량 급격 늘어 애플도 아이폰 전용 신용카드 선택



삼성페이는 일찌감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페이 캡처



애플카드. 애플 페이지에 입력해 사용할 수 있다. /애플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비교>

	결제서비스	결제 방식	특징	암호화폐
	삼성페이	NFC+MST	소비 분석, 투자 추천 등	탑재
	애플페이	NFC	페이먼트 넷지	공식지원
	LG페이	NFC+MST	최근 미국 진출	준비중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지갑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새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함께 출시한 상품으로 애플페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애플카드는 수수료가 없고 오히려 캐시백 프로그램 '데일리 캐시'도 제공한다. 사용액 연체분에 대해서만 연 12.99~23.99% 이자를 물린다.

아이폰 전용 카드인 셈이다. 앞서 애플 페이는 카드에서 0.03~0.15%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생태계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애플카드는 애플 페이지 사용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스마트폰 시장 침체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구독 서비스를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는 상황, 보급에 필수적인 아이폰 사용자를 붙잡아 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페이가 애플 페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삼성페이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누적 사용금액도 40조 원을 넘어섰다. 남미와 미국 등지에서

도 사용량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 기술을 탑재해 기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다. 따로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해외에서도 사업자나 사용자들 선호도가 높다는 후문이다.

페이 서비스는 단순히 결제뿐 아니라 금융 관리 서비스로도 발전하는 모양새다.

애플카드는 '페이먼트 넷지' 기능을 통해 카드 할부시 이자를 계산해주고,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알려주는 등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페이는 일찌감치 소비 분석과 금융계좌 관리를 제공해왔으며, 최근

에는 금융상품 추천과 외화 환전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 발을 넓혔다.

결제도 시작했다. 미국 모바일 결제 업체 다이내믹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MST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해 MST 기능을 자사 단말기에 탑재해왔다. 다이내믹스는 2008년 루프페이의 기술을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양사 소송전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간 대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LG페이가 바로 다이내믹스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물가도, 수출도 마이너스... 수축경제 시작됐다

1 7월 생산자물가 작년비 0.3% ↓

전년동월비 2년9개월만에 하락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작년 7월에 비해 0.3% 내렸다.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은 2년 9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3.55(2015=100)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작년 7월과 비교해서는 0.3%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16년 10월(-0.1%)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보다 농림수산물 가격이 4.5% 하락했고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8.3% 떨어진 영향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농산물 출하량이 적었지만 올해는 폭염이 상대적으로 덜해 그에 따른 영향도 적었다"며 "국제유가가 약세로 돌아선 것도 전년 동기 대비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월 대비로는 농림수산물은 0.1% 하락했다. 일조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난 참외(-29.9%), 피망(-46.1%), 마늘(-15.0%), 고구마(-20.5%)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0.4% 떨어졌다.

축산물도 돼지고기(-2.0%), 소고기(-0.7%) 등을 중심으로 0.7% 내려갔다. 수산물은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9% 올랐다.

공산품 가격도 0.1% 떨어졌다. 수요 부진 등으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0.5% 하락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김희주 기자 hj89@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물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2년 9개월 만에 하락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최근 가격하락이 이어진 양파가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2 8월 수출도 감소... 9개월 연속 ↓

반도체 등 부진에 13.3% 줄어 對中 20%, 對日 13.1% 감소

8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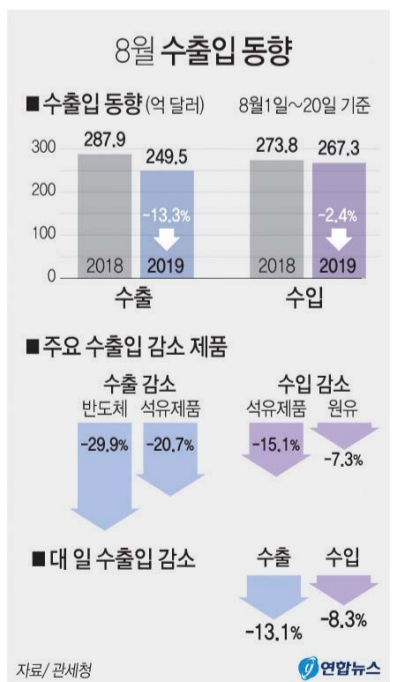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49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는 작년 동기와 같은 14.5일이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8월 월간 수출도 감소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수출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8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8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9.9% 줄었고 석유제품(-20.7%), 자동차 부품(-1.6%) 등이 감소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57.5%), 승용차(8.0%), 선박(179.7%) 등은 증가



했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20.0% 감소했고 우리나라와 무역분쟁 중인 일본의 경우 13.1% 줄었다. 1~20일 수입은 267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석대성 기자

대학 보유 특허기술 사업화 쉬워진다

정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의무 예외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방형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산업을 설계하고 예산·세제·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를 구현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혁신 역량 잠재력이 높은 대학의 기술과 특허를 산업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에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인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올해 하반기에 완화한다. 현재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5년간 면제받지만, 올해 하반기에 이를 10년으로 확대한다. 투자액 회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기술지주회사(1곳)와 자회사(4곳 내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보유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교육부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브릿지플러스) 수행 대학을 추가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해 산학 간 기술사업화 동반관계를 강화한다.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주요 기업과 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주선해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연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설계하고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열린 혁신 플랫폼'을 내년 구축한다. 이 조직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스마트 서비스·플랫폼 혁신과 관련한 의제와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석대성 기자 bigstar@